Mary Evelyn Tucker, □유학사상과 생태학□(예문서원)

제 1 부 비판의 본질

노 동 욱

한국문학과종교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Literature and Religion

두웨이밍의 「계몽주의 정신을 넘어서」

근대 서구 탄생의 기초가 된 계몽주의 정신은 과학기술문명, 산업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근대정신으로 중시하는 가치들, 즉 자유, 평등, 인권 등의 개념이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8 세기 이후의 세계는 계몽주의가 제공한 가치와 이익 속에서 번영해 왔고, 인류는 '도구적 합리성'을 통해 이 세계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으며,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경제적 진보가 필요하며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으로서의 계몽주의, 전 세계적 변환을 위한 인간 잠재력의 발견으로서의 계몽주의, 만물의 주인 그리고 만물의 척도가 되고자하는 인간 욕구의 실현으로서의 계몽주의는, 현대의 정치·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덕적(윤리적) 담화"(60)로서 그 위상을 점해왔다.

계몽주의 정신의 이면

계몽주의 정신이 우리 인류의 발전에 꼭 필요했고, 불가피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계몽주의 정신이 이룩한 근대 서구의 어두운 면도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상을 탐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정복하는 '파우스트적 추진력'을 비평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파우스트□(*Faust*)의 한 구절은 바로 계몽주의가 지닌 추진력의 독단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 "밤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구나. 하지만 마음속엔 밝은 빛이 빛난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서둘러 완성해야겠다. 주인의 말보다 위력이 있는 것도 없으리라. 여봐라, 하인들아! 모조리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내가 대담히 계획했던 일, 멋지게 이루어다오. 연장을 잡아라. 삽과 괭이를 놀려라! [. . .] 이 위대한 일 완성하는 데는 수천의 손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족하리라!"

이러한 맥락에서, 두웨이밍은 “사회의 붕괴와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시급한 과제는 현대 서구의 소수 지배자들과 문화적인 엘리트들로 하여금 공동 영적 모험에 참여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중시해 온 계몽주의의 유산에 대하여 재숙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61)라고 주장한다.

주목할 것은 두웨이밍이 계몽주의 정신의 전면 거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웨이밍도 지적하고 있듯이, 계몽주의 정신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무관한 윤리 또는 가치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두웨이밍에 따르면, 우리는 “계몽주의의 영역을 넓혀 주고 도덕적 감수성을 강화시켜 주며 또한 그것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계몽주의가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자료들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62).

공동체 의식

두웨이밍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 영적 모험을 성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몽주의 프로젝트의 공동체 의식 부재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제 인류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웨이밍은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세 가지 영적 전통을 비평적으로 검토한다.

첫 번째 전통은 그리스 철학,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의 윤리적·종교적 전통이다. 두웨이밍은 이 전통이 계몽주의 정신의 출현에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구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온 이원론적인 사고, 즉 물질-정신, 몸-영혼, 성스러움-비속함, 인간-자연, 창조주-피조물로 나누는 도식을 초월하여, “대지의 성스러움, 존재의 연속성, 인간 공동체와 자연의 상호 호혜적 관계, 인간과 천(天)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궁극적 가치들이 가진 특징들을 현대 철학, 종교 그리고 신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63)고 주장한다. 두웨이밍은 여기서 그리스 철학, 유대교, 기독교로 대표되는 근대 서구의 기저에 깔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근대 서구사회가 발흥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닌 미덕과 가치—헬레니즘의 시민개념, 유대교의 언약개념, 그리고 기독교의 성도 간 교제 개념이 지닌 공동체 의식—가 철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전통은 비서구의 문명들, 즉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교, 도교, 서아시아의 이슬람교를 포함하는 비서구의 문명들의 종교적 전통이다. 두웨이밍에 따르면,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서구 근대보다 비교적 적대적이지 않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은, 이기적이지 않은 근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65). 그러나 유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조차 서구화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의 정신구조 또한 이제 중상주의(重商主義) 및 국제적 경쟁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세 번째 전통은 아메리칸 원주민, 하와이족, 마오리족, 그리고 다수의 원시부족들이 신앙했던 토착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이다. 원시 토착적 종교 전통은 '뿌리내림'(rootedness)을 깊이 체험하는 데 방점을 둔다. 구체적 장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환경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과 자연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뿌리내림'은 인간 중심적 세계와 우주 간에는 상호 의존과 상호 호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계몽주의 정신과 근대정신을 재성찰할 수 있게 한다. 즉 '뿌리내림'은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자연에 참여하는 삶,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초월하는 삶의 세계관을 중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것은, 두웨이밍이 주장하는 것이 계몽주의 정신의 폐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웨이밍이 주장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영적 전통을 토대로 계몽주의 정신을 보강하고 변화시키며 재구성하여 에큐메니컬(ecumenical) 정신을 지닌 지구촌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것이다. 즉 계몽주의 정신의 핵심을 토대로 하여 제 4 의 영적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공동으로 행위하는 훈련된 성찰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윤리학자들이 계획하는 '창조적 지대'(creative zone)를 향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두웨이밍의 주장의 핵심은 합리성, 자유, 평등, 인권 등 계몽주의의 장점을 취하면서, 즉 계몽주의를 단념하지 않은 채로 계몽주의가 이룩한 근대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두웨이밍이 이 글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지구촌) 공동체 의식'은 결코 단순히 세계화(globaliz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이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 세계가 빈번하게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지구촌 공동체를 성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온,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세계화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콰메 앤써니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서 "어떤 의미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 제기이다.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충성과 애착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가?"(22)라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즉, 이는 세계화의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라는 개념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애착을 배제한 세계시민주의의 강조는 자칫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애피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 우리는 모든 외국인들을 저버리는 민족주의자를 편들 필요도 없고, 자신의 친구나 동료 시민을 냉담하고 공평무사하게 대우하는 극단적인 세계시민주의를 편들 필요도 없다.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입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시민주의'라고 불릴 것이다. (24)

애피아의 말은 '인류에 대한 헌신'과 '지역적 충성', 두 측면 모두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양상을 잘 표현한 것이며, 이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구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기저에 있는 정신은 유학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즉 유학 사상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는 동질화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원초적 유대(primordial ties, 민족, 언어, 성, 땅, 계층, 신앙)를 강조하는 것은 흔히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르는 편협한 반작용이라고 비난받지만, 두웨이밍에 따르면 사실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즉 오늘날 세계 공동체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동질화적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원초적 유대를 강화해나가면서도 편협하지 않은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도모를 위한 유학사상의 인간프로젝트

유학은 인간을 환원적 모델로 정의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유교는 인간을 1) 감각적 존재, 2) 사회적 존재, 3) 정치적 존재, 4) 사회적 존재, 5) 형이상학적 존재의 다섯 가지로 정의한다. 주목할 것은, 이 다섯 가지 인간의 정의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점이다. 유교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 공동체, 자연, 초월자라는 네 가지 분리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성의 중심에 있는 연결된 개인(흐르는 물과 같은), 개방된 역동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교의 인간 프로젝트는 자아와 공동체 간의 상호관계, 하나의 종(種)으로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인간과 천(天)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웨이밍은 유교 프로젝트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원초적 유대는 그것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 때문에 중요하다고 역설한다(74). 원초적 유대와 다양성은 일견 대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교 프로젝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특정 개인은 특별한 조건 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숙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존재이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원초적 유대와 다양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각 지역에 뿌리 내려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각 개체가 지닌 다양한 빛깔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유교 프로젝트의 원초적 유대와 다양성은 오늘날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도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자기 본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개방되어 있고 창조적으로 변화하는 자아로서, 충실히 개인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77)는 두웨이밍의 역설적인 주장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두웨이밍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의 밀착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의 연대성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연대성을 이루기

> 위해서 편협성을 초월해야 하며, 사회적 통합에 의해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인종중심주의와 배타적 문화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적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국수주의를 극복하여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인간 번영에 의해 고취되지만 동시에 인간중심주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7-78)

필립 로스(Philip Roth)는 단편 소설 「유대인의 개종」("The Conversion of the Jews")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민족이 지닌 자민족중심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생겼다. 라 구아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58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지의 어머니는 신문에 보도된 사상자 명단을 살피던 중, 8 명의 유대인 사망자 이름을 찾아냈다(그의 할머니는 9 명을 찾아냈지만, 그녀는 밀러까지 유대인 이름으로 계산했던 것이다). 오지의 어머니는 그 8 명 때문에 그 추락 사고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수요일 자유토론 시간에 오지는 '자신의 친척 몇 사람'이 항상 유대인 이름을 골라낸다는 사실에 랍비 바인더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랍비 바인더는 문화적 통일이니 뭐니 하고 설명을 시작했지만, 그 때 오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랍비 바인더는 오지에게 앉으라고 말했으나, 오지는 바로 그 때 그 58 명이 모두 유대인이라면 좋겠다고 외쳤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호출을 당하게 된 이유였다. (141-42)

로스가 지적하고 있는 예는 사실 어느 민족에게서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무비판적인 자민족중심주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학사상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수인(왕양명)은 인간중심주의와는 판이하게 다른 신유교의 인간-우주 중심적 전망에 대해 □대학문大學問□(*Inquiry on the Great Learning*)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대인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다. 그는 세계를 한 가족으로 그리고 국가를 한 사람으로 여긴다. …… 대인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마음속의 인간본성에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유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천인합일이라는 말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동아리로 파악하고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유학의 자연관으로서, 지구 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생태론적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안은수 214). 천인합일의 근거는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일성을 선험적으로 규정한 명제, 즉 성(性)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성은 자연계의 각 존재가 자신의 내재적 본성으로 부여받은 성향을 말한다. 각 개별자에게 부여된 이 본성은 전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성은 천인합일 의식이 도출되는 근거가 된다.

□중용□(中庸)은 인성이 천지와 삼위일체를 형성할 때,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천지인의 합일에 대한 유학 사상의 강조점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 唯天下至性이어야, / 오직 천하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 爲能盡其性이라. / 그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能盡其性이면, / 그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 則能盡人之性이오; / 곧 사람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고,
> 能盡人之性이면, / 사람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 則能盡物之性이오; / 곧 만물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고,
> 能盡物之性이면, / 만물의 본성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 則可以贊天地之化育이오; /
> 곧 하늘과 땅의 변화와 생육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고,
> 可以贊天地之化育이면, / 하늘과 땅의 변화와 생육을 도울 수 있게 되면
> 則可以與天地參矣니라. / 곧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게 된다.(78-79)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天)·지(地)·인(人)이 동격의 구성원으로 존중된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천지인이 삼위일체로서 상호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천인합일은 유교의 인간-우주 중심적 전망에 담겨 있는 포용적 인본주의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학적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광범한 도덕적 자원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 볼 문제

1. 두웨이밍은 일관적으로 서구 문명 전통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두웨이밍은 서구와 동아시아를 과도하게 이분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2. 생태학적 관점에서 서구의 계몽주의 정신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동양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미화로 흐를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일례로, 두웨이밍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서구 근대보다 훨씬 덜 적대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이며 덜 이기적인 근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정부의 주도적 지도력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능력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정치조직, 그룹(혹 공동체)을 중시하는 개인적 창조성이 함께 공존한 덕택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발전하였다."(65)고 말하며, 이어서 "유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일본, 한국, 북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의 서구화는 이 나라들의 영적 조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65)고 말한다.

3. 두웨이밍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그가 강조하는 '원초적 의식'은 향수적 감정 내지는 낭만적 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분히 현대적 관점에서, 즉 현대의 발전 상황에서 돌아보니 가능한 '결과론적 사고'가 아닌가? 두웨이밍이 제시하는 원시 토착적 세계관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

4. 유학사상이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대안적 요소라고 한다면, 전통 유교사회의 이분법적 계급문제와 젠더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주희 이전의 원시 유학과 주희 이후의 유학 사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학사상도 두웨이밍이 비판하는 서구의 전통처럼, 그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두웨이밍이 한국의 조선시대를 상찬(75)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의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주장의 논쟁적 근거」

배리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두웨이밍의 글에 대한 반응이다. 베리가 두웨이밍의 글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두웨이밍은 우리가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영적 자료들을 탐구해야 할 필요를 논하면서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지구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개념을 분명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베리는 이에 대해 18 세기 말에서 19 세기 초에 계몽주의의 발생(발흥)이 중대한 공산사회의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운동들은 한결같이 자치적이고 협동적인 공동체를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두웨이밍은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덕목 중 하나인 우애를 결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베리는 이에 대해 두웨이밍이 사회주의 운동이 중시했던 동지애(comradeship)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의 의견> 홉스, 로크, 루소 등 대표적 계몽주의자들은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며 국가의 기원을 설명했는데, 그들의 '사회계약론'이 바로 공동체 개념이 아닐까?

2) 두웨이밍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NGOs)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환영하고 있다. 물론 베리 또한 비정부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두웨이밍이 비정부기구에 대해 놀랄 만큼 신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즉 베리는 인간본성에 대한 주희의 생각, 즉 "자신의 역사적 지식과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 및 공정 이익 사이에서, 정당한 자기 중시와 이기심 사이에서, 늘 불확실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인간 심성을 불확실성, 즉 인간이 잘못되기 쉽고 연약하다는 사실"(90)에 동의한다.

<나의 의견> 두웨이밍은 비정부기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였고, 베리 역시 비정부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지만, 비정부기구(NGOs), 즉 시민단체들의 무용성(無用性)과 그 폐해(弊害)가 드러나고 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그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으며, 극소수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利益團體)로 변질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극한 투쟁도 서슴치 않고 있어서, 오히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민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시민단체는 정부기구(GO)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